

전남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선정 '잡음'

장애인단체, 조선대 사회복지회 위탁운영 체결 반발 "평가 점수 공개하라"... 전남도 "적법하게 공정 심사"

전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선정을 놓고 일부 장애인단체가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3명은 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단법인 조선대 사회복지회와 체결한 전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선대 사회복지회는 장애인복

지시설이나 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2015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정량평가에서 하위를 받았다"며 "시설장(예정자)도 장애인복지업무나 기타 복지관 근무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1위 일수가 있느냐"며 탈락한 4개 장애인 전문 단체의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했다. 또 과거 위탁모집 시 신청자격에 전남에 주 사무소를 두거나 분 사무소를 두도록 했는데 이번 모집 공고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진 배경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갑자기 자격요건이 바뀌고, 정량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은 신생법인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철저히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복지관 위탁운영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추세이며 조선대 사회복지회가 정량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맞지만 사업계획과 시설장의 사업수행능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탁 운영자 공모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전남장애인총연맹·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 등 5곳이 응모했다. 위탁심사는 법인의 시설운영 능력(25점), 법인의 공신력(20점), 광역복지관 중장기 운영 계획의 적합도 및 시행능력(30점), 시설장(예정자)의 사업수행능력(25점) 등 항목별 기준 점수를 부여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평균 점수가 높은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결정했다. 조선대 사회복지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전남 나주에 있는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한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추위에 노로바이러스 장염환자 급증 광주 최근 검출률 22%... 이상기온으로 유행 늦춰져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철 식중독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총 10개 협력병원에 입·내원한 설사 환자에서 원인 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에 4.1%(122건 중 5건)였던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12월에는 22.0%(168건 중 37건)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첫 주 현재 검출률이 21.6%(37건 중 8건)로 나타나 당분간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해 다음 해 3~4월까지 지속하는데, 최근에는 이상기온 등으로 유행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6주간 늦어졌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24~48

시간 잠복기를 거친 뒤 갑자기 오심, 구토, 설사를 동반한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킨다. 건강한 성인은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지속하다가 회복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탈수가 심할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 섭취, 환자의 구토물에 의한 비말감염, 환자와 접촉을 통한 감염 등이 있다. 환자가 접촉한 식자재나 장난감 등과 같은 가구, 용기, 식품 등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기혜영 수인성 질환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에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어 학교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무안 농협서 흉기 소동 조합장이 지점장에 위협

전남의 한 농협에서 조합장이 흉기를 들고 소동을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무안군 한 농협 지점에서 조합장 A씨가 지점장 B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흉기 소동은 전날인 2일 오후 5시 30분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두 사람이 과거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농협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다문화도서관 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어린이실에서 다문화 여성이 어린이들에게 다문화 도서를 읽어주고 있다. 운암도서관은 다문화 계층의 지식 정보격차 해소와 모국어에 대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다문화 도서 1천200여권을 구매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예식장 직원 탈의실 몰카범 구속 기소

경찰 "전과 없어도 처벌 강화"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예식장 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모 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3명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예식장에서 근무하며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내연 관계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 전과는 없었지만, 대검찰청의 이른바 '몰카 사범'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성폭력 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에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공갈 위협이 있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촬영한 경우 등 4가지 양형 요소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했고, 사적 영역인 탈의실을 침범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 고교 기숙사, 학생 복지공간으로 전환

시민단체 등 학력 신장 중심 기숙사에 문제제기... 기숙사 폐지 반발 예상

성적 우수 학생 학습·생활시설로 전략한 고교 기숙사들이 학생 복지 공간 등으로 개편된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의 거쳐 일선 고교의 기숙사를 폐지하고 학생활동 공간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에서는 29개 일반

고에서 기숙사를 운영해 3천7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원거리 통학 학생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상당수 고교가 학교 성적을 입학 선발에 반영해 사실상 우열만 형태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15개교

기숙사를 폐지하고 해당 학교에 2억원씩 지원해 건물을 재구조화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고교학점제 운용을 위한 수업 공간, 방과 후학교와 선택 교육 과정 수업 공간, 교내 동아리방, 자율학습·공부방, 독서실 등으로 용도 변경을 독려하고 있다. 학생 자치

공간, 휴식·체력단련 공간, 학교와 지역민의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부모는 자녀들의 학습과 생활 지도를 위해 기숙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체질개선'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우려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과 학력 신장 중심의 기숙사에 대한 시민단체, 언론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나주서 100달러 위조지폐 발견

경찰 수사 나서 나주의 한 은행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께 나주시 한 은행 지점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위조지폐는 이 은행 본점이 나주지점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위폐 감별기로 확인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점은 해당 위조지폐를 나주지점으로 돌려보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위조지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보고 위조 수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요청했다. 또 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유통 과정과 시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eco city

가연보호는
인간의 생명이며 희망입니다